

2022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㉔	2	㉔	3	㉓	4	㉕	5	㉔
6	㉔	7	㉓	8	㉕	9	㉕	10	㉔
11	㉑	12	㉕	13	㉕	14	㉔	15	㉓
16	㉓	17	㉔	18	㉔	19	㉔	20	㉑
21	㉑	22	㉕	23	㉔	24	㉓	25	㉓
26	㉔	27	㉔	28	㉔	29	㉑	30	㉔
31	㉕	32	㉑	33	㉔	34	㉔	35	㉓
36	㉑	37	㉕	38	㉔	39	㉓	40	㉔
41	㉔	42	㉑	43	㉓	44	㉕	45	㉑

해설

[1~3] 화법

1. [출제의도] 발표 전략 파악하기

‘여러분은 성적을 확인할 때 무엇부터 보시나요?’와 같이 질문을 하며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발표자가 활용한 발표 자료의 출처를 언급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청중이 친숙하게 느끼는 소재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발표자는 청중에게 질문을 제시하며 발표를 시작할 뿐, 발표 순서를 안내하지는 않는다.

⑤ 발표의 마무리 부분에서 발표자가 자신의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2.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발표자는 ㉠을 활용하면서 100점으로 인해 평균 점수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풀이] ① 발표자는 ㉠을 활용하면서 평균 점수를 실력 평가의 기준이 되는 값으로 설정하는 이유를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③ 발표자는 ㉠을 활용하면서 표준점수와 백분위의 장단점을 비교하지는 않는다.

④ ㉠은 표준점수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자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집단의 비율, 즉 백분위를 구하는 방법과는 상관이 없다.

⑤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에 따라 원점수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는 상관이 없는 진술이다.

3. [출제의도] 청중의 반응 분석하기

‘학생 1’은 발표를 통해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 좋았음을 이야기할 뿐이므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은 국어의 원점수가 낮았음에도 표준점수가 높은 이유를 알게 되어 좋았음을 언급하며 발표 내용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② ‘학생 2’는 ‘발표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며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④ ‘학생 1’은 지난번 시험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고, ‘학생 3’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반영하는 방법이 대학마다 다르다는 기사를 본’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⑤ ‘학생 2’와 ‘학생 3’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의문점을 갖고 자신의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4~7] 화법/작문

4. [출제의도] 인터뷰 전략 이해하기

박사가 언급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 1’이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의 첫 번째 발화에서 인터뷰를 하게 된 목적을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학생 1’은 두 번째 발화에서 TV 뉴스를 보며 궁금했던 바다 사막화의 개념을 박사님께 질문하고 있다.

③ ‘학생 1’은 세 번째 발화에서 바다 사막화의 발생이 탄산 칼슘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봐도 되는지에 대해 질문하며 자신의 이해가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있다.

④ ‘학생 1’의 네 번째 발화에서 상대방이 발언한 내용을 재진술하면서 추가적인 질문을 이어가고 있다.

5.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에서 ‘박사’는 ‘학생 2’가 수온 상승으로 탄산 칼슘의 석출이 증가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A]에서 ‘학생 2’는 탄산 칼슘의 석출 원인과 증가에 대해 궁금한 점을 ‘박사’에게 질문하고 있다. 하지만 ‘박사’가 설명한 내용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③ [A]에서 ‘박사’는 ‘학생 2’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관련 설문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④ [B]에서 ‘학생 2’는 ‘박사’가 소개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지 않다.

⑤ [B]에서 ‘박사’는 ‘학생 2’의 배경지식을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파악하기

(나)에서 바다의 탄산 칼슘을 증가시키는 연안 개발 실태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가)의 ‘박사’가 설명한 바다 사막화의 개념을 (나)의 1문단에 제시하고 있다.

② (가)의 ‘박사’는 바다 사막화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바다 숲 조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의 4문단에서는 바다 숲 조성의 현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③ (가)의 ‘박사’는 바다 식목일의 제정 취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바다 식목일의 제정 취지와 함께 바다 식목일이 제정된 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가)의 ‘박사’는 해양 오염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바다 사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의 2문단에서 탄산 칼슘의 석출이 증가하는 이유로 해조류의 남획과 해조류를 먹고 사는 해양 동물의 급증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7. [출제의도] 조건을 고려한 내용 추가하기

‘바다 사막화의 문제는 해양 생물들의 위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한 것은 바다 사막화가 우리의 삶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불필요한 전등 끄기 등과 같은 생활 속 작은 일들부터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이야기하며 학생들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② 우리의 삶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나타나지 않는다.

④ 바다 사막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바다 사막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위기가 아닌

지구 온난화로 인한 전지구적 생태계 파괴를 언급하고 있어 (나)의 글의 의도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바다 사막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나타나지 않는다.

[8~10] 작문

8.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3문단에서 학교 측이 메타버스로 학교 축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비용 문제와 학생들의 저조한 참여를 걱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이 제작에 참여하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과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온라인 행사를 실시하여 홍보할 계획이라는 점을 해결 방안으로 밝히고 있다.

[오답풀이] ① 학생이 경험한 내용은 언급하였으나, 예상 독자와 함께했던 경험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② 건의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③ 건의 사항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④ 속담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9.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의 ㄱ-2는 학생들의 메타버스에 대한 경험 여부를 나타내는 것일 뿐, 학생들이 기존의 축제보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축제를 선호한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보기>의 ㄷ에서도 그러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을 ‘이 경험을’로 수정할 경우 문장의 호응이 맞지 않게 된다. 문장의 호응을 고려할 때 ‘이 경험을 통해’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11~15] 문법

11. [출제의도] 음운 변동 이해하기

‘(밥을) 먹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는 받침 ‘ㄱ, ㄷ, ㅂ’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로 용언에서만 일어나는 유형은 아니다.

[오답풀이] ② ‘밀도(密度)’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는 한자어에서 ‘ㄷ’ 받침 뒤에 ‘ㄷ, ㅅ, ㅈ’이 연결될 때 일어나는 된소리되기이다.

③ ‘납득’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는 받침 ‘ㄱ, ㄷ, ㅂ’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로 예외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④ ‘술개’에서는 ‘ㄷ’ 뒤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지만 ‘줄 것’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줄’의 ‘-ㄷ’이 관형사형 어미이기 때문이다.

⑤ ‘(고기)를 삶고’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는 용언의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ㄱ, ㄷ, ㅅ,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12. [출제의도] 합성이 분석하기

‘불고기’에서는 ‘물고기’와 달리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불고기’는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 ‘ㅅ’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불고기’는 중세 국어에서 ‘불+ㅅ+고기’로 분석될 수 없다.

13. [출제의도] 형태소 이해하기

‘놀았-’도 ‘놀-’과 ‘-았-’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놀았다’는 세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말이다.

14. [출제의도] 안은문장 이해하기

㉠의 안긴문장 ‘소리도 없이’는 용언 ‘나갔다’를 수식하는 부사절이고, ㉡의 안긴문장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산’은 체언 ‘수박’을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오답풀이] ① ㉔에서는 ‘소리도’가 주어이다.
② ⑥는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여 해당 문장의 목적어 기능을 수행한다.
③ ㉔의 안긴문장 속에는 ‘사다’라는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 ‘시장에서’가 있지만,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⑤ ⑥의 안긴문장에는 목적어가 없다. 반면 ㉔는 목적어인 ‘수박’이 생략되어 있다.

15. [출제의도] 사전 활용하기

‘아우는 형의 말을 비밀로 묻어 두었다.’의 ‘묻다’는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속 깊이 숨기어 감추다.’의 의미이므로, ‘묻다²-㉔’의 용례이다.

[오답풀이] ① 사전의 정보 ‘【…에 …을】’, ‘【…에 …을】 / 【…을 …으로】’를 통해 주어 외에도 목적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임을 알 수 있다.

② ‘묻다²’와 ‘묻다³’은 다른 표제어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동음이의어이다.

④ ‘묻다³’은 ‘묻다²’와 달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물어, 물으니]와 같이 불규칙 활용이 일어난다.

⑤ ‘질문하다’는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묻다.’라는 의미이므로 ‘묻다³’의 ‘물었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16~20] 독서(인문)

<출전> 홍대용의 사상과 그 의의(재구성)

개관: 이 글은 홍대용의 사상과 그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홍대용은 중화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청나라 여행을 계기로 그곳에서 만난 학자들과 교류하며 사상을 전환하였고, 지구설과 무한 우주설이 실려 있는 「의산문답」을 저술하였다. 지구설은 우리가 사는 땅이 둥글다는 것으로, 개인이 있는 곳이 각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무한 우주설은 우주가 무한하다는 것으로, 세상의 중심과 주변을 구별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홍대용의 사상은 현대 사회에 필요한 평등주의와 다원주의를 우리 역사에서 선구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6.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3문단에 따르면 하늘이 둥글다는 것은 전통적인 천지관이며, 홍대용이 청나라 여행을 계기로 깨달은 점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하자 조선에서는 청나라를 공격하자는 북벌론과 청나라를 배척하자는 척화론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청나라가 정치적 안정을 이루자 조선의 유학자들은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의산문답」에 실려 있는 지구설과 무한 우주설을 설명하고 있다.

⑤ 이 글에서는 홍대용이 아닌 다른 북학과 학자들의 사상이 언급되지 않는다.

17.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갑의 말은 사람이 귀한 존재이고 동물이 천한 존재이므로 이들이 같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신분이 낮은 자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천한 신분이라도 능력에 따라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갑의 말과는 다른 생각이다.

[오답풀이] ① 갑은 사람을 귀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동물과 초목은 천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송시열 또한 중국과 인류를 귀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오랑캐와 금수는 천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③ 을의 말은 동물과 초목도 각자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모든 국가와 문화, 사람이 각자 중심이 될 수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는 홍대용 사상의 다원주의적 성격과 공통점이 있다.

④ 을의 말은 정해진 관점과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모든 사람이 존재 가치가 있다는 홍대용의 생각과 연결될 수 있다.

⑤ 을의 말은 하늘에서 우리가 사는 땅을 보면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중심과 주변을 나눌 수 없다는 홍대용의 생각과 공통점이 있다.

18. [출제의도] 핵심 개념의 내용 파악하기

2, 3문단에서 홍대용은 ㉠에서 벗어나 사상적 전환을 이루었다고 하였으며, 이를 보여 주는 것이 ㉡이라고 하였다.

[오답풀이] ① ㉠은 조선의 중심 사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 맞지만, ㉡은 ㉠에 어긋나는 학설이다.

② ㉠은 청을 오랑캐로 여기는 생각의 근거가 되지만, ㉡은 아니다.

③ ㉠은 북벌론의 바탕이 되지만, ㉡은 척화론과 관련이 없다.

⑤ ㉠은 조선의 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맞지만, ㉡이 ㉠을 발전시킨 것은 아니다.

19.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 파악하기

『춘추』에서 주나라 안과 밖을 구분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공자가 주나라 사람이므로 주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는 제 나라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홍대용의 생각을 보여 주는 것으로, 중국 안과 밖을 구별하려는 중화사상과는 다른 생각이다.

[오답풀이] ① 청나라를 오랑캐로 보는 것은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홍대용이 중화사상을 가진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조선만이 명나라의 제도를 지킨다는 것은, 조선이 중화였던 명나라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홍대용이 조선을 중화의 계승자로 생각했었음을 보여 준다.

③ 변화한 문물을 오랑캐에게 맡겼다고 한 것은, 오랑캐로 여겨졌던 청나라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물을 구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공자가 주나라 밖에 살았다면 그곳에서 도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부분은, 주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화와 오랑캐의 구별이 상대적이라는 홍대용의 생각을 알 수 있다.

20.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 이해하기

㉔와 ①의 ‘세우다’는 ‘나라나 기관 따위를 처음으로 생기게 하다.’라는 의미이다.

[오답풀이] ② ‘질서나 체계, 규율 따위를 올바르게 하거나 짜다.’라는 의미이다.

③ ‘계획, 방안 따위를 정하거나 짜다.’라는 의미이다.

④ ‘처져 있던 것을 똑바로 위를 향하여 곧게 하다.’라는 의미이다.

⑤ ‘무던 것을 날카롭게 하다.’라는 의미이다.

[21~25] 독서(과학)

<출전> 청각의 원리(재구성)

개관: 이 글은 인간이 소리를 듣게 되는 과정을 공기 전도와 골전도로 나누어 설명하고 골전도의 원리가 적용된 골전도 이어폰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공기 전도는 소리가 외이, 중이를 거쳐 내이에 도달하는 방식이고 골전도는 소리가 뼈를 통해 바로 내이에 도달하는 방식이다. 골전도의 원리가 적용된 골전도 이어폰은 고막을 직접 자극하지 않고 야외 활동 시 사용해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21.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소리가 전달되는 두 가지 방식인 공기 전도와 골전도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골전도 이어폰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이어폰 기술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있지는 않다.

③ 청각에 대한 두 가지 관점도 없고, 이에 대한 절충도 없다.

④ 골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청각에 이상이 생기는 사례를 소개하지 않았으며,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22.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4문단에서 20~1,000Hz의 소리는 공기 전도로는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 소리가 물체의 진동에 의해 발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5문단에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은 음의 소리가 난다고 하였으므로, 주파수가 낮아지면 낮은 음의 소리가 난다고 할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고막의 진동이 청소골에서 증폭된다고 하였다.

③ 3문단에서 공명 주파수는 외이도의 길이에 반비례한다고 하였으므로 외이도의 길이가 짧을수록 공명 주파수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④ 5문단에서 전류를 세게 할수록 진폭이 커져 음량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므로, 보이스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세지면 음량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23.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4문단에 따르면 대화할 때 듣는 자신의 목소리에는 공기 전도로 전달되는 소리와 골전도로 전달되는 소리가 함께 있다. 그렇지만 녹음된 소리를 들을 때에는 골전도로 전달되는 20~1,000Hz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색하게 느끼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평소에 말을 할 때 듣는 자신의 목소리에는 공기 전도로 전달된 소리와 골전도로 전달된 소리가 함께 있으므로 골전도로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기회가 적은 것은 아니다.

② 소리가 내이를 거치지 않고 뇌에 전달될 수 없으므로 ‘그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③ 전자 장치의 전기적 에너지와 청각 신경이 받는 자극 크기는 ‘그 이유’와 상관이 없다.

⑤ 자신이 말할 때 듣는 목소리에는 공기 전도와 골전도로 전달되는 소리가 함께 있다. 그러므로 외이에서 공명이 일어나는 소리, 즉 공기 전도로 전달되는 소리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니다.

24.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자신의 목소리는 공기 전도와 골전도의 방식으로 내이에 도달하므로 외이와 중이에 이상이 있어도 청각 세포, 청각 신경, 중추 신경계 등에 이상이 없다면 골전도의 방식으로 전달된 소리는 들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면 청각 세포, 청각 신경, 중추 신경계 등의 문제로 인한 감각 신경성 난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6문단에서 골전도 이어폰을 사용해도 내이는 자극이 되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하면 청각 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보기>에서 감각 신경성 난청은 소리가 커져도 알아듣는 정도가 좋아지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이어폰의 음량을 높여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④ 고막에 이상이 있어도 고막을 거치지 않는 골전도의 방식으로 소리가 전달될 수 있으므로 골전도의 원리를 이용한 보청기가 효과가 없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⑤ 전음성 난청은 외이, 중이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공기 전도로 전달되는 소리는 듣기 어렵지만 골전도로

전달되는 소리는 들을 수 있다.

25. [출제의도] 핵심 정보 파악하기

2문단에서 공기 전도로 전달되는 소리와 골전도로 전달되는 소리 모두 섬모가 흔들려 발생한 전기 신호가 뇌에 전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과 ㉡ 모두 섬모의 흔들림을 유발한다.

[오답풀이] ① 5문단에서 이어폰의 보이스코일에 교류 전류를 가하면 진동이 발생하며, ㉠은 이 진동을 공기 전도의 방식으로 내이에 전달한다고 하였다.

② 5문단에서 ㉡은 귀 주변 뼈에 진동판을 밀착하여 진동을 내이로 전달한다고 하였다.

④ 6문단에서 ㉡은 귀를 막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야외 활동 시 사용해도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5문단에서 ㉠과 ㉡ 모두 내부 자기장과 교류 전류로 인해 인력과 척력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26~28] 문학(고전 산문)

<출전> 유성준 창본, 「수궁가」

개관 : 이 글은 수국의 용왕이 병이 나자 자라가 이를 고칠 약인 토끼의 간을 구하러 가고, 토끼는 자라의 꾀에 빠져 용궁으로 가지만 기지를 발휘하여 탈출한다는 내용의 판소리 사설이다. 충성스러운 신하인 자라와 지혜로 위기를 벗어나는 토끼를 통해 현실 세계의 모습을 우의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제시된 부분은 용궁에서 육지로 갈 적임자에 대해 용왕과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다.

26. [출제의도] 내용 파악하기

잉어는 “세상이라 허는 곳은 인심이 박하여 지혜 용맹 없는 자는 성공하지를 못하리다.”라고 말하며 지혜와 용맹이 있는 자가 토끼의 간을 얻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오답풀이] ① 용왕은 신하들이 묵묵부답하며 자신의 병을 고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을 보며 탄식한다. 그러므로 신하들이 신임을 얻기 위해 다룬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③ 잉어는 거북이 지략이 넓으나 복판이 대모로 되어 있어 인간들의 공예품 재료가 될 것이므로 적임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

④ 방개는 해운공이라는 벼슬을 가지고 있으므로 벼슬을 얻지 못하여 육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다.

⑤ 화공은 토끼의 모습을 모르는 자라를 위해 토끼의 모습을 그려 줄 뿐 동행하지는 않는다.

27.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A]는 수국 신하들의 벼슬과 이름을, [B]는 토끼의 귀나 코 등의 신체 부위들을 길게 열거하여 해당 장면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A]와 [B]는 용궁과 육지라는 공간적 배경을 대비하기 위한 서술은 아니다.

③ [A]와 [B]에서 인물의 성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A]와 [B]에는 용왕이 처한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A]와 [B]에는 용궁과 토끼에 대한 평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8. [출제의도]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하기

용왕은 방개가 눈이 솟아 있어 왔다갔다를 잘하는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뒷걸음질을 할 것이므로 토끼를 데려올 적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답풀이] ① 방개는 ‘살살 기어 들어와서 공손히 엎드리’며, 자라는 ‘앙금앙금 기어 들어오더니, 몸을 굽혀 재배하고 상소를 올리’며 스스로 후보로 나선다.

③ 잉어는 조개가 홀조와 닮다 인간에게 잡힌다는

고사를 근거로 적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④ 잉어는 메기의 입이 커서 식탐이 많기 때문에 ‘어옹들’에게 쉽게 잡힐 것이라고 주장한다.

⑤ 자라는 강 위에 떠서 망보기를 잘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잡히지 않고 무사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29~31] 문학(현대시)

<출전> (가)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 함민복, 「그날 나는 슬픔도 배물렀다」

개관 : (가)는 모란이 피기를 기대하는 마음과 모란이 저서 느끼는 설움을 노래한 시이다. (나)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중국집 젊은 부부의 삶을 관찰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 시이다.

29.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색채어를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모란의 불변성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오답풀이] ② 시의 첫머리인 1, 2행과 마지막인 11, 12행에 비슷한 구절을 배치한 변형된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모란이 피는 것에 대한 화자의 기다림을 강조하였다.

③ ‘나는 아직 기들리고 있을 테요’와 ‘찬란한 슬픔의 봄을’을 도치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④ 음성 상징어인 ‘뚝뚝’을 활용하여 꽃이 떨어지는 느낌을 인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화자인 ‘나’가 시의 표면에 등장하여 설움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30.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는 모란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 화자가 슬픔을 느낀 시간이고, ㉡는 화자가 중국집 젊은 부부의 모습을 보며 고단한 삶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한 시간이다.

[오답풀이] ① ㉠에서 모란과의 소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에서 화자가 중국집 젊은 부부를 관찰하지만 소통의 단절은 확인할 수 없다.

② ㉠에서 화자는 모란이 사라져 슬픔을 느꼈을 뿐 유대감을 느낀 것은 아니다. ㉡에서 화자는 중국집 젊은 부부에게 거리감을 느낀 것은 아니다.

③ ㉡는 화자가 명랑하게 살아가는 중국집 젊은 부부의 삶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시간이므로 삶의 권태를 느낀 시간은 아니다.

⑤ ㉠가 현실을 비판하는 시간은 아니다.

3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한 감상하기

‘슬픔도 배물렀다’는 화자가 고단한 삶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중국집 젊은 부부를 보고 슬픔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했음을 나타낸 것이다. 젊은 부부의 고단한 삶을 보고 화자가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섬섬해 우웁네다’에는 꽃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지만 ‘아직 기들리고 있을 테요’를 통해 기다림을 잃지 않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한다.

② ‘찬란한’과 ‘슬픔’은 봄을 수식하는 모순된 진술로,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봄에 대한 인식을 통해 모란이 지는 슬픔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강조한다.

③ ‘연약한’과 ‘튼튼한’의 이미지 대비를 통해 희망을 잃지 않는 중국집 젊은 부부의 삶을 강조한다.

④ 화자가 처음 접한 중국집 젊은 부부의 모습은 ‘이상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삶을 관찰하고 ‘눈물처럼 아름다워’와 같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

[32~35] 문학(고전 시가/고전 수필)

<출전> (가)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나) 권근,

「주옹설(舟翁說)」

개관 : (가)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연군가사로, 두 여인의 대화를 통해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손’과 ‘주옹’의 문답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고전 수필로, ‘주옹’의 대답을 통해 편안함만을 추구하기보다 늘 경계하며 사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작가의 가치관을 전달하고 있다.

32.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에서는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나)에서는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는가?’ 등과 같은 표현을 통해 ‘주옹’의 가치관을 강조한다.

[오답풀이] ② (가)와 (나) 모두 점층적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에서는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이, (나)에서는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대상을 예찬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와 (나) 모두에서 반어적 진술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에서 명령적 어조와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은 나타나지 않고, (나)에서 명령적 어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33.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가)의 화자는 작가의 분신으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충성을 대신하여 표현한다. 임과 헤어진 것을 조물주의 탓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탓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화자가 이별한 임인 옥황상제는 임금과 대응하므로 ‘천상 백옥정’은 임금이 있는 궁궐로 볼 수 있다.

③ 꿈에서 ‘임’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못하는 화자를 통해 떨어져 있는 임금에 대한 화자의 걱정과 그리움이 드러난다.

④ 자신의 그림자를 불쌍하다고 여기는 모습을 통해 임금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 대한 작가의 심정이 드러난다.

⑤ ‘낙월’이 되어서라도 ‘임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추’려는 것은 ‘임’을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므로 임금에 대한 작가의 충성심이 드러난다.

34. [출제의도] 극적 구성 이해하기

(가)의 ‘너’는 ‘그리 생각 마오.’라는 발화를 통해 자책하고 있는 ‘각시’를 위로하고 있다. 따라서 중심 인물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는 주변 인물(보조적 인물)이다.

[오답풀이] ① ‘너’는 중심 인물에게 먼저 말을 걸어 대화를 유도하는 주변 인물(보조적 인물)이다.

③ ‘너’는 중심 인물에게 ‘낙월’보다 ‘긋은 비’가 되어 임에게 직접 다가가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주변 인물(보조적 인물)이다.

④ ‘주옹’은 ‘손’에게 다시 질문함으로써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깨닫도록 유도하며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중심 인물이다.

⑤ ‘손’은 중심 인물의 삶의 모습에 문제 제기하며 대립하고 있는 주변 인물(대립적 인물)이다.

35.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주옹’은 ㉠이 인다고 해도 자신의 마음을 흔들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 때문에 ‘주옹’이 위태로움을 느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손’은 ㉠이 변화불측하여 ㉠에서 지내는 것을 ‘험한 데서 위태로움을 무릅쓰는 일’이라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은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이지만, ‘주옹’은 오히려 물보다 더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한다.

④ ㉔은 편안함을 좇으며 욕심을 부리다가 위험에 처하는 사람들의 마음(인심)을 비유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㉔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위태로운 곳이지만 주용은 경계를 한다면 욕지보다 더 안전한 곳이라 생각한다.

[36~40] 독서(사회)

<출전> 가설 검정과 오류(재구성)

개관 : 이 글은 가설 검정과 판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오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설 검정은 통계적 자료를 통해 확률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 절차이므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1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실제 참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는 오류를 뜻한다. 반대로 2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틀렸음에도 이를 기각하지 못하는 오류를 뜻한다. 1종 오류가 2종 오류에 비해 더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오므로 가설 검정에서는 유의 수준을 두어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36. [출제의도] 핵심 정보 파악하기

1문단에 따르면, 가설 검정을 위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한다고 하였다.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될 뿐이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때 새롭게 가설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② 2문단에 따르면, 대립가설을 기준으로 가설 검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귀무가설을 기준으로 검정한다.

③ 2문단에 따르면, 대립가설의 채택 여부는 귀무가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④ 4문단에 따르면, 1종 오류와 2종 오류는 동시에 줄일 수 없다. 그 이유는 한쪽 오류를 줄이면 그만큼 반대쪽 오류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⑤ 4문단에 따르면, 오류 중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1종 오류이다.

37.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1문단에 따르면, 판단하는 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가설은 대립가설이다.

[오답풀이] ①, ③ 2문단에 따르면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대립가설은 채택된다.

② 3문단에 따르면 판결에서 가설의 기각 여부는 판사가 결정한다.

④ 2문단에 따르면 귀무가설은 참과 거짓을 알기 전까지는 참으로 간주한다.

38.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2문단과 3문단에 따라 <보기>의 표를 정리하면, A와 D는 실제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에 비해 B는 귀무가설이 거짓임에도 기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2종 오류를, C는 귀무가설이 참임에도 기각한 것이므로 1종 오류를 범한 것이다. 판결에서 2종 오류를 줄이면 1종 오류가 늘어난다. 3문단에 따르면 판결에서 1종 오류란 ‘무죄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므로, 1종 오류가 늘어난다는 것은 무죄인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① A와 C는 모두 귀무가설이 참인 상황에 해당한다. 판결에서 귀무가설은 ‘피고인이 무죄이다.’이므로 피고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② A와 B는 모두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판단에 해당한다. 약효 실험에서 귀무가설은 ‘신약이 효과가 없다.’이다.

③ A와 D는 실제 상황에 맞는 판단이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⑤ C는 1종 오류에 해당한다. 4문단에 따르면, 제약 회사의 1종 오류란 신약의 효능이 없어 회사가 신뢰를 잃는 것이다.

39. [출제의도] 핵심 개념 확인하기

유의 수준은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이다. 이 범위 내에서는 1종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유의 수준을 낮게 정할수록 대립가설을 채택할 확률은 낮아진다.

[오답풀이] ① 인권과 관련된 판단일수록 값을 작게 설정해야 한다.

② 유의 수준은 참일 확률과 거짓일 확률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④ 유의 수준은 실험 전에 미리 정하는 것이다.

⑤ 유의 수준은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이다. 가설을 판단할 때 사용할 자료 개수의 최대 허용 범위와는 관련이 없다.

40.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3문단에 따르면, ‘피고인은 유죄이다.’가 대립가설이라고 하였으므로 귀무가설은 ‘피고인은 무죄이다.’가 된다.

[오답풀이] ① 두 가설이 모순이라는 것은 한 가설이 참이면 다른 가설은 거짓이 된다는 것이므로 동시에 참이 되거나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

② 병이 호전된다는 것은 신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므로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귀무가설과 어긋난다.

③ 귀무가설을 버린다는 것은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가설을 기각하는 것이다.

⑤ 판단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오류인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의미한다.

[41~45] 문학(현대 소설/시나리오)

<출전> (가)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나) 이문열 원작, 박종원 각색,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개관: (가)는 1960년대 시골의 한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엄석대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급장과 그 앞에서 굴복하는 나약한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의적인 수법으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의식 구조와 권력의 행태를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다. (나)는 (가)를 시나리오로 각색한 작품으로 영화화되기도 했다.

41.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A]에서 화자는 어린 시절 학급에서 겪었던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회상하며 어른이 된 지금 그 경험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서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독백 형식이기는 하나, 대상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감각적인 묘사나 인물 간의 대립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으며 인물의 심리가 변화하는 과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⑤ 들은 바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여 서술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갈래의 전환 이해하기

(나)에서 김 선생이 ‘다시’를 반복하는 모습은 아이들을 고무시켜 석대에게 맞설 용기를 북돋워 주고자 하는 것으로 김 선생의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② (나)에서 아이들의 대답이 힘찬 소리로 바뀌는 것은 아이들이 석대에게 맞설 수 있게 된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가)에 등장하는 대결을 대체하고 있다.

③ 석대의 방화는 (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나)에서는 석대의 보복을 암시하기 위해 추가되었다.

④ (가)에서 서술자의 서술로 처리된 인물의 내면 의식이 (나)에서는 내레이션 기법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⑤ (가)에서 학급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에서는 교실 속 장면을 통해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43. [출제의도] 작품 내용 파악하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규율’할 수 있게 된 것은 석대의 질서가 무너진 후 아이들에게 생긴 변화이다.

[오답풀이] ① ‘작은 석대를 꿈꾸’는 것은 일부 아이들이 석대가 만들어 놓은 질서를 재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아직 석대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② 아이들은 석대의 질서에서 벗어난 후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④ ‘나’는 석대의 억압적 질서에 익숙하게 적응하여 살아온 자신의 의식을 굴절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⑤ ‘나’는 석대의 질서가 학급에 편의와 효용을 제공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금지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44. [출제의도] 구질의 기능 파악하기

새 급장이 단상 위에 올라가지 않는 것은 학급의 다른 아이들과 평등한 입장임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학급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겪는 혼란과 교실 밖에서 석대의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을 말한다.

② 별나고 당차다는 것은 아이들이 석대에게 맞붙을 수 있는 특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③ 김 선생이 책을 나누어 준 것을 본 다른 아이들도 감화를 받아 석대와 맞서고 있다.

④ 그동안 여러 차례 급장을 바꾸어 왔다는 의미로, 학급에 여러 차례 혼란이 거듭되어 왔음을 암시한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새로 생긴 건의함은 국민 탄핵제도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밀고와 모함으로 학급 임원들을 갈아치웠다는 내용으로 보아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② 담임선생님이 학급의 일을 모르는 척한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학급의 질서를 새로 수립해 나가길 바랐기 때문이다.

③ 자치회가 끝없는 입씨름으로 지속된 것은 아이들이 공동선을 위한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④ ‘내’가 새로운 급장 선거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은 구성원으로서 학급의 공동 문제에 참여할 의지가 아직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⑤ 학급의 일에 빠져나가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협력하여 학급의 일을 수행하는데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